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11월 4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농업기술센터 현장교육-13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기고] 감귤 생산예측, AI로 현장을 바꾸다-10면(현도경)	농업디지털센터	제주일보
○	농업농촌소식-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8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농촌 인력난 해소…외국인 274명 투입-2면	-	제민일보
○	감귤 수확의 계절-1면	-	삼다일보

(제민일보: 2026년 11월 4일)

○ 제주농업기술센터 현장교육-13면



제주농업기술센터 현장교육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허영길)는 최근 제주시 일원에서 스마트농업 이해 기초과정 교육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생들은 우영뜨락, 베리왓, 제주농업기술센터 식물공장 및 테스트베드 등을 견학했다.

11. 4.
제민일보 13

(제주일보: 2026년 11월 4일)

○ [기고] 감귤 생산예측, AI로 현장을 바꾸다-10면

감귤 생산예측, AI로 현장을 바꾸다



나의 의견

현 도 경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업디지털센터

제주 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관리는 농가소득은 물론 제주농업의 경쟁력과 직결한다. 정확한 생산량 예측은 적정 출하와 유통계획 수립, 농업정책 결정의 출발점이다.

제주도는 매년 인력을 투입해 꽃수와 열매 수, 열매 크기 등을 조사해 왔는데, 인력 중심의 수작업 조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조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3차원(3D) 기술을 접목한 '감귤 관측 자동화'를 추진 중이다.

이 기술을 토대로 지난 8월 실시한 2차 노지감귤 관측조사에서는 필지당 조사시간을 약 50% 단축했으며, 열매 수는 85% 이상, 열매크기는 97% 이상의 측정 정확도를 확인했다. 수작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한 것이다.

물론 기술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촬영 속도와 거리, 각도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누가 촬영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결과를 얻으려면 촬영 방법을 표준화하고, 조사원 누구나 쉽게 따를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감귤 관측 자동화는 현장의 반복적인 노동을 덜고, 보다 일관되고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해 생산량 예측과 농업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있다. 감귤 관측 자동화는 일일이 이뤄지던 관측에서 AI 기술로 농업 관측의 혁신을 이루고, 제주 감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11. 4.
제주일보 10

(제주일보: 2026년 11월 4일)

○ 농업농촌소식-9면

■ 농업농촌소식

▲양채류

△병해충 관리: (양배추) 무름병·나방류 등, (브로콜리) 검은썩음병, 검은무늬병 등, (비트) 갈색점무늬병 등 예찰·방제

▲콩

△수확시기: 잎이 누렇게되어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 이상 변색될 시

- 기계수확 시 성숙 후 15일 후(개화 후 60일 경) 줄기와 꼬투리 마를 때

※ 착협고 위치가 낮을 경우에는 손으로 수확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음

△수확 후 철저한 건조·정선 필요

▲월동무

△2차 양분관리(10a 기준): 1차 시비 후 15일경 요소 11kg, 염화가리 8kg시비

△병해충 관리: 나방류 및 벼룩잎벌레 등 예찰 방제

11. 4.
제주일보 9

(제주매일: 2026년 11월 4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8면

○ 무료입장: 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 문의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732-3380)

11. 4. 제주매일 8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

□ 추진개요

○ 기 간: 2026. 11. 19.(목) ~ 11. 23.(월) / 5일간

○ 장 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 참가인원: 6.5만 명 내외

○ 행사성격: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 주요프로그램

○ 공식행사: 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 학술·비즈니스: 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 경연행사: 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 문화·공연: 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 체험행사: 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 빅 이벤트: "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 - 감귤품장 경품 체험

□ 입장권안내

○ 현장구매: 2,000원

○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 1,000원

(삼다일보: 2026년 11월 4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13면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기간=11월 19일(목)~23일(월)/5일간

▲장소=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참가 인원=6만5000명 내외

▲행사성격=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주최/주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주요 프로그램

△공식 행사=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학술·비즈니스=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경연 행사=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문화·공연=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체험행사=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빅 이벤트='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감귤품장 경품 체험

▲입장권 안내

△현장 구매=2000원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1000원

△무료 입장=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문의=㈔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 732-3380.

11. 4. 삼다일보 13

(제민일보: 2026년 11월 4일)

○ 농촌 인력난 해소…외국인 274명 투입-2면

농촌 인력난 해소…외국인 274명 투입

농촌 인력난 숨통

운영 농협 3곳서 6곳으로 확대

베트남 현지 선발 인력 배치

작년보다 인원 두배 늘어

감귤·월동채소 수확 지원

감귤 수확 및 월동채소 수확철을 맞아 서귀포 지역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274명이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이번에 입국하는 계절 근로자는 효돈농협 50명, 서귀포농협 47명, 제주감귤농협 40명, 제주위미농협 60명, 중문농협 30명, 대정농협 47명 등 총 274명으로 6개 운영 주체를 통해 배치·운영될 예정이다.

계절 근로자 모두 베트남 남딘성에서 현지 면접을 거쳐 선발됐다.

이 가운데 효돈농협, 서귀포농협, 제주감귤농협, 제주위미농협, 중문농협 등 5개 운영 주체의 계절 근로자는 감귤 수확 및 선별 작업 등을 지원하며, 대정농협 계절 근로자는 월동채소 수확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서귀포 지역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총 136명이 배치돼 3개 운영 주체(제주위미·서귀포·대정 농협)를 통해 운영됐다.

올해는 늘어나는 농가의 수요와 본격적인 수확철 인력 부족 문제를 반영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를 대폭 확대했다.

서귀포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원활한 입국과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농정과, 감귤유통과 및 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입국 인솔을 추진한다.

입국 인솔 과정에는 행정 및 농협 관계자와 통역원 등이 참여해 입국 절차와 이동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이 각 운영 주체의 숙소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국 이후에는 계절 근로자의 안전한 농작업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농교육과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무단 이탈 방지와 원활한 현지 적응을 위해 근로자 간담회 및 문화체험행사를 추진하고, 11월 중에는 농협별 계절 근로자 환영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2026년 11월부터 2027년 7월까지 운영,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 농가의 인력난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원활한 입국과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계절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법수 기자

11. 4.
제민일보 2

(삼다일보: 2026년 11월 4일)

○ 감귤 수확의 계절-1면



감귤 수확의 계절 3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한 밭에서 농민들이 감귤을 수확하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samdailbo.com